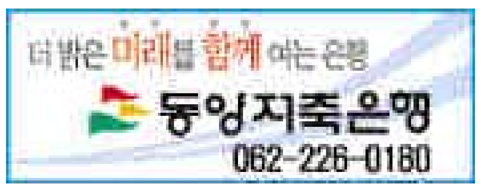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80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7월 9일 (음력 5월 25일) 월요일

위용 드러낸 압해대교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목포~압해 간 연륙교(총연장 3.5km)의 중앙부에 아치부분이 경사지게 설치돼 조형미가 뛰어난 '닐센 아치교' 165m가 최근 연결돼 다리 전체의 모습이 드러났다. 작업인부들은 미리 만들어진 닐센 아치교를 3천700t급 해상크레인과 예인선 등 6척의 선박으로 목포신항에서 현장으로 직접 옮겨와 연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정아 감독 '가짜박사' 의혹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

예일대 지도교수 "그런 학생 모른다"… 졸업자 명단 없어

신감독 "학위 받았다"

지난 4일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신정아(35)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의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신 감독이 박사학위 의혹과 관련, 지난달 25일 동국대에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감독으로 임명했다가 본지가 확인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동국대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등 인선 절차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신 감독이 지난 2005년 미 예일대 대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박사학위 논문은 제목이 'Guillaume Appollinaire : Catalyst for Primitivism, For Picabia and Ducamp'(기욤 아폴리네르 : 원시주의, 피카비아와 뒤샹의 촉매)이며 지도교수는 예일대 크리스틴 메링 교수로 돼 있다.

그러나 신 감독의 논문과 완전히 같은 제목의 논문이 1981년 미 버지니아대 그리스인 유학생 에카테리니 사말타노우-치아크마(Ekaterini Samaltanou-Tsiakma)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등재돼 있으며 1984년 미국 도서 목록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 결과 신 감독의 논문 요약문은 버지니아대 논문의 요약문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같았으며, 논문에 인용된 표와 페이지 숫자만 바뀌었다.

신 감독의 지도교수로 돼 있는 예일대 크리스틴 메링교수도 신 감독을 지도한 적이 있는냐는 국내 모 대학교수의 이메일 질문에 "논문은 물론 학생(신감독)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1942년부터 2005년 여름까지 박사학위 취득자 전원의 명단이 기록된 예일대 미술학과 홈페이지에는 신 감독의 이름이 없으며, 한국 학술진흥재단에서도 박사학위 신고기록이 없다.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신 감독은 8일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학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평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메링 교수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논문은 일부 인용했을 뿐이며 표절이 있다면 예일대에서 학위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갑수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은 "학위 취득여부, 논문표절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조만간 재단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신감독이 동국대에 제출한 사표는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며 동국대 교무처 관계자는 "단순 수리할지, 징계를 해야할지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공무원 해외연수 실속없다

대부분 위로·관광성 외유… 보고서 내실화 등 개선 시급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해외연수 운영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시·군·구는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해외방문 프로그램이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돼 해외연수는 장려하되 내용을 충실하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퇴직 공무원 위로 차원에서 단체 해외관광을 보내고 있는 사례도 있어 '공짜여행'이란 부정적 인식까지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방문국의 유명 관광지를 경유토록 하거나 연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일정도 포함돼 연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팀별로 작성해 전 직원이 자료를 공유토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적 수준 일색이다.

전남도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중국·동남아·유럽·대양주 등을 5~10일간 돌아보도록 하는 '국외선진지 벤치마킹 팀훈련'이라는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광주시도 지난해 4개팀 37명에게 총 6천257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도시철도, 도시녹화, 복합문화, 환경보전 등의 4개 팀은 각각 8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광주시내 각 구청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를 해외연수비로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전체 공무원의 32.8%인 212명이 군비 1억5천900만원을 보조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도 전체의 21.2%인 137명에게 3억7천600만원을 지원해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인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해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 지역을 많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도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비로 2005년 1억2천17만원을, 2006년에는 전체 공무원의 20.3%인 199명에 대해 1억1천902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명목 등으로 지난해 120명이 아시아권과 유럽, 북미지역을 다녀왔으며 공무원들의 외국방문 비용은 프로그램에 따라 50~70%까지 군예산으로 지원했다. 장흥군은 지난 2005~2006년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1억원씩의 예산을 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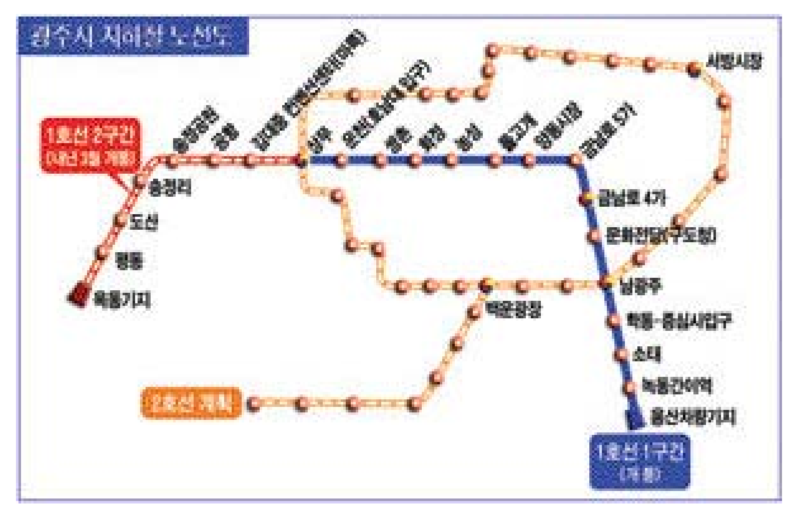
이같은 실정에 따라 감사원이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태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연수자부터는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토록 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광주지하철 1호선 내년 3월 완전 개통

2단계 8.14㎞구간 완공
연말까지 시운전·점검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을 잇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이 내년 3월 완전 개통된다.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는 8일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평동역을 연결하는 8.14㎞ 구간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호선 2단계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역, 광주공항, 송정공원, 송정리, 도산, 평동역 등 6개역을 통과하게 된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완전 개통에 대비해 지난 5월 말까지 전동차 40량을 추가 반입했으며, 올 연말까지 차량과 전기·신호·통신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 뒤 건교부의 성능 검증을 확인받아 내년 3월 1호선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사가 끝난 구간은 도시철도 1호선 총 20.1㎞ 중 2단계 구간으로 지난 2004년 4월 28일 개통된 1단계 구간(소태역~상무역 13개역, 11.96㎞)과 연결된다.

1호선 전 구간이 개통될 경우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33분(시내버스 이용시 80분 소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공사비는 1조6천억원이 투입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